

권위보다 창발·안전보다 리스크...

미래에 알아야 할 9가지 성공원칙



나인

조이 이토·제프 하우 지음
이지연 옮김

스마트폰이 나온 지 불과 10년 만에 국내 보급률은 85%에 육박한다. 그러나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 스티브 발머는 “아이폰이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의 발언이지만, 불과 10년 만에 그의 예측은 빛나간 것으로 판명됐다(적어도 국내에서는). 사실 인터넷 시대 이전의 삶은 단순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을 기술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전화기, 영화, 인터넷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전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적인 미디어융합연구소의 MIT 미디어랩의 소장인 조이 이토와 MIT 미디어랩의 객원 연구원인 제프 하우가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펴낸 ‘나인’은 더 빠르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진 미래에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성공원칙을 담고 있다.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와 일본어판 출간 즉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책은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례들에서 시작한다. 일례로 1895년 파리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루미에르 형제는 “영화는 미래가 없는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저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앞선 이들의 실수를 비웃는 차원이 아닌, 오늘의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기 위해서다.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인간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철학자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 철학자 쿤에 따르면 ‘에피스테메’의 대전환기인데,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다.

저자들은 생각의 혁신을 위한 아홉 가지 원칙을 주장한다. 이 원칙은 미디어랩의 화이트보드에 늘 적혀 있으며, 수많은 실험과 경험 속에서 태동된 금과옥조나 다름없는 것들이다.

‘권위보다 창발’, ‘푸시(push)보다 풀(pull) 전략’, ‘지도보다 나침반’, ‘안전보다 리스크’, ‘순종보다 불복종’, ‘이론보다 실제’, ‘능력보다 다양성’, ‘견고함보다 회복력’, ‘대상보다 시스템’.

이 원칙은 ‘창업 잘하는 법’ 등과 같은 팀과 의 차원이 다르다. 마치 네발짐승이 처음으로 일어난 뱀을 배우듯, 급변하는 진화기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적응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민음사·1만5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과 컴퓨터 공존시대 사랑과 상실감 조명



보이지 않는 세계

리즈 무어 지음
공경희 옮김

전미도서협회 ‘2017년 주목할 책’, BBC ‘2016년 최고의 책 10’, 북스 ‘2016년 최고의 소설’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던 미국의 신예 소설가 리즈 무어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출간됐다. ‘무계’가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에 오랫동안 등재되었고, 2014년에는 로마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리즈 무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다. 소설은 인간과 컴퓨터(기계)가 공존하는 시대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또한 과학과 인공지능의 역사까지 아우르면서 인간의 사랑과 상실감,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

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서사의 시간 또한 1920년대부터 2020년까지 펼쳐질 만큼 역동적이며, 작가는 한 세계를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야기는 1980년대 보스턴 소재 컴퓨터 공학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에게는 홈스쿨링을 받는 에이더가 있다. 열두 살의 에이더는 자독히도 수줍음을 타는 영재다. 연구소가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데 반해 데이비드의 비밀스러운 이력과 그가 알고 있는 뱀이 알려지면서 이야기는 점차 흥미롭게 전개된다. 그 사이 에이더는 아버지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고 연민을 느끼게 된다.

소설은 이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의 몽글몽글한 이야기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혹적이다. 정체성, 인공지능, 여성의 내면을 다룬 격조 있고 신비로운 소설!”이라고 평한다. <소소의책·1만5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소수자·난민...‘다름’ 인정받는 사회는 언제쯤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지음
정지인 옮김



“증오는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폭력 또한 단순히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준비되는 것이다. 증오와 폭력이 어느 방향으로 분출되는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지, 또 그러기 위해 먼저 어떤 장벽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하거나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것이다.”(본문 중에서)

최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총각네 야채가게’ 대표도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갑질’의 의미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증오는 특정한 사회,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사회적 긴장도가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은 증대된다. 우리나라 실정도 예외는 아니다. ‘ㅇㅇ충’, ‘극혐’(극도로 혐오함)과 같은 말이 일상화될 만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등 문제는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8월 경찰관들이 그리스 남동부의 코스섬에서 난민들의 등록절차 도중 발생한 난투극을 말리기 위해 소화기를 뿌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큼 ‘혐오사회’로 변모했다.

“누군가를 ‘극혐’해도 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세겨야 할 진리다. 2016년 독일출판평의회상 수상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카롤린 엠케가 펴낸 ‘혐오사회’는 혐오와 증오의 매커니즘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우리 사회의 혐오문제를 파헤친다. 그동안 저자는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구조적 폭력의 곁을 예민하게 감지해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혐오나 증오를 개인적 감정으로 치부한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의 문제처럼 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혐오’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으로 전이되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된다. 자칫 집단적 광기와 폭력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저자는 15년 넘게 세계 분쟁지역을 누빈 저널리스트답게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구조적 폭력을 들여다본다. 독일 클라우스니츠에서 일어난 난민 시위,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등 구체적 사례를 토대로 가시적·비가시적 실재를 아우른다.

지금까지 혐오는 대부분 여성혐오나, 혐오 자체의 표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카롤린 엠케는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혐오나 증오는 사회적으로 공인된다고 본다. ‘증오의 공금자’들이 키운 편견과 결합될 때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증오’의 공모’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흔히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표준’에서 벗어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동일한’ 민족성, ‘정상적인’ 성적 지향과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표준’이라는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성’에 대한 맹신이라고 설명한다.

추천서를 쓴 ‘88만원 시대’ 저자 박근일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하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된 것이다”면서 “단지 혐오나 증오를 추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키워낸 불평등과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다산초당·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06년 등단 후 10여년만에 펴낸 첫 시집



푸른 화형식

임주희 지음

계간 시산맥 선정시선 33번째로 발간된 임주희 시인의 ‘푸른 화형식’은 유광과도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다. 2006년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 후 십여 년 만에 처음 펴내는 시집에는 오랫동안 응시하고 갈 무리해왔던 시적 지향이 응축돼 있다.

‘기억이 놓친 시간’, ‘용궁다방’, ‘얇은 뱀이꽃 등 모두 3부로 엮인 시집에는 주옥같은 시편들이 빛을 발한다. 외로움과 근원을 천착한 작품들은 ‘내면의 여행’을 떠나는 시적 자아의 행로와 무관치 않다.

이를 가리켜 고경숙 시인은 “집시의 속이 유랑이라면 그녀의 시는 집시를 닮았다. 붉은 천을 두르고 꽃 같은 무희가 되었다가 유리벽 뒤로 세상을 아슬아슬하게 걷기도 한다”며 “외로움의 근원을 파고드는 깊은 논매를 따라가 보면 바람을 품고 옹크러 울다 지친 ‘꽃등’이 되기도 한다”고 평한다. <시산맥·9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회주의·자유주의 공존하는 쿠바 아바나 여행담



아바나의 시인들

백민석 지음

“아바나는 무작위 여행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계획없이 쏘다닌다 하더라도 아바나는 당신을 심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당신은 아바나에 떨어진 지 한달이 지나도록 가이드 북도 읽지 않았다. 무작위로 길을 떠나 걸음을 멈

추면 그곳이 가볼만한 곳이 되고, 어제 걸었던 길을 또 걸어도 다른 볼거리가 나타났다...”(본문 중 일부)

소설가 백민석(46)이 재작년 가을과 겨울, 쿠바 구석 구석을 돌며 찍은 사진들과 단상을 2인칭으로 엮은 에세이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아바나는 밤과 낮의 풍경이 확연히 다르다. 아바나 시내에선 춤과 음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웨딩카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면 행인들은 환호로 축복한다.

<작가정신·1만40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